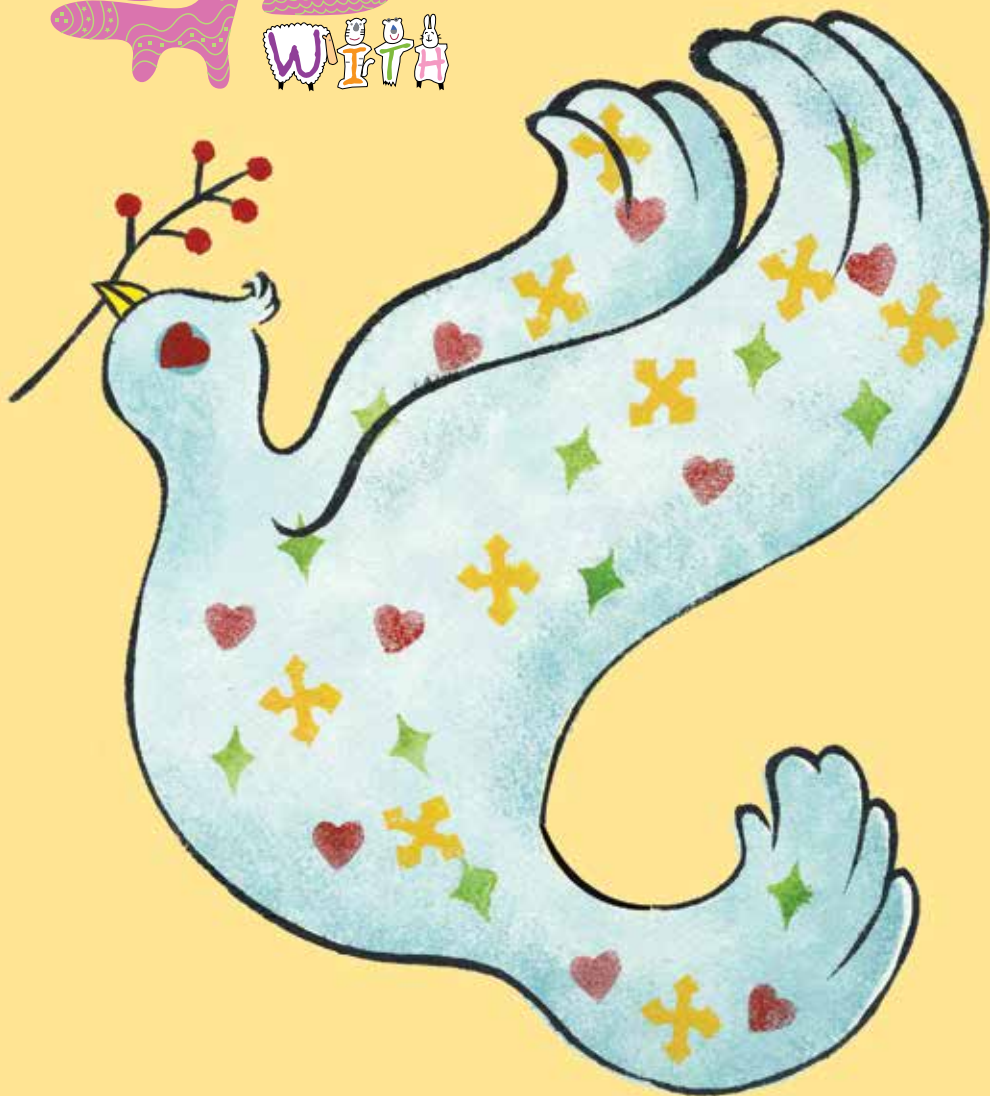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월 교육 내용	04
❁ 1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1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1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1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위드 포토	66
❁ 1월 추천도서	64
❁ 1월 교육활동지	71



*표지일러스트

[성령의 비둘기] 장현주_2016
24x30cm, Acrylic on Paper



1월 교육내용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암송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첫째주♥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무엘상 2:17)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둘째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평화 가운데
사는 것,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셋째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31-32)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넷째주♥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20)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 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좋은
이 사람에게 네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실천 내용

1. 새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 해 보기
2.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나의 ‘다짐 리스트’ 만들어 보기

우드



1월 첫째주
2016년 1월 3일~9일



memory time



마음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주

♥ 주제 :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 성경 이야기 :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2:44-47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어떻게 생활했나요? 빈 칸을 채워보아요. (44-47절)

“모든 물건을 서로 ○○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 ○○”

“날마다 ○○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을 먹고”

“하나님을 ○○하며”

“온 백성에게 ○○을 받으니”

②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47절)

★ 교육활동 - “나를 소개해요”

새해 첫 주일이예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2:44-47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 놓고 함께 사용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나의 것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날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도 올 한해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믿음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라요.



Q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Pray 올 한 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18:31-34 “십자가 죽음과 부활”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뱀음을 당할 것이다.

33.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은 몇 번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나요? (33절)

째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대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부
모
님
과
함
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37.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38.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눈 먼 사람은 큰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38절)

“ 예수님, 나를

여겨 주십시오!”



★ 삶 속으로 ★

눈 먼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앞을 볼 수 있게 즉시 고쳐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들, 걱정과 외로움, 아픔 등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문제들, 걱정과 외로움, 아픔 등)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이예요.

★ 기도문 ★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나의 마음을 글로, 기도문으로 써보세요.

누가복음 19:1-7 “삭개오의 집에 묵으신 예수님”

1.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말씀 속으로★

1. 부자인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2절)



★삶 속으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빼앗아 거두었어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에게 미움 받고, 소외당하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관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보아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했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8절)

“주님. 내 소유의

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로

갚아 주겠습니다.”



★삶 속으로★

그동안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빼앗는 미움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 이전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예수님을 만나 부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되기를 바라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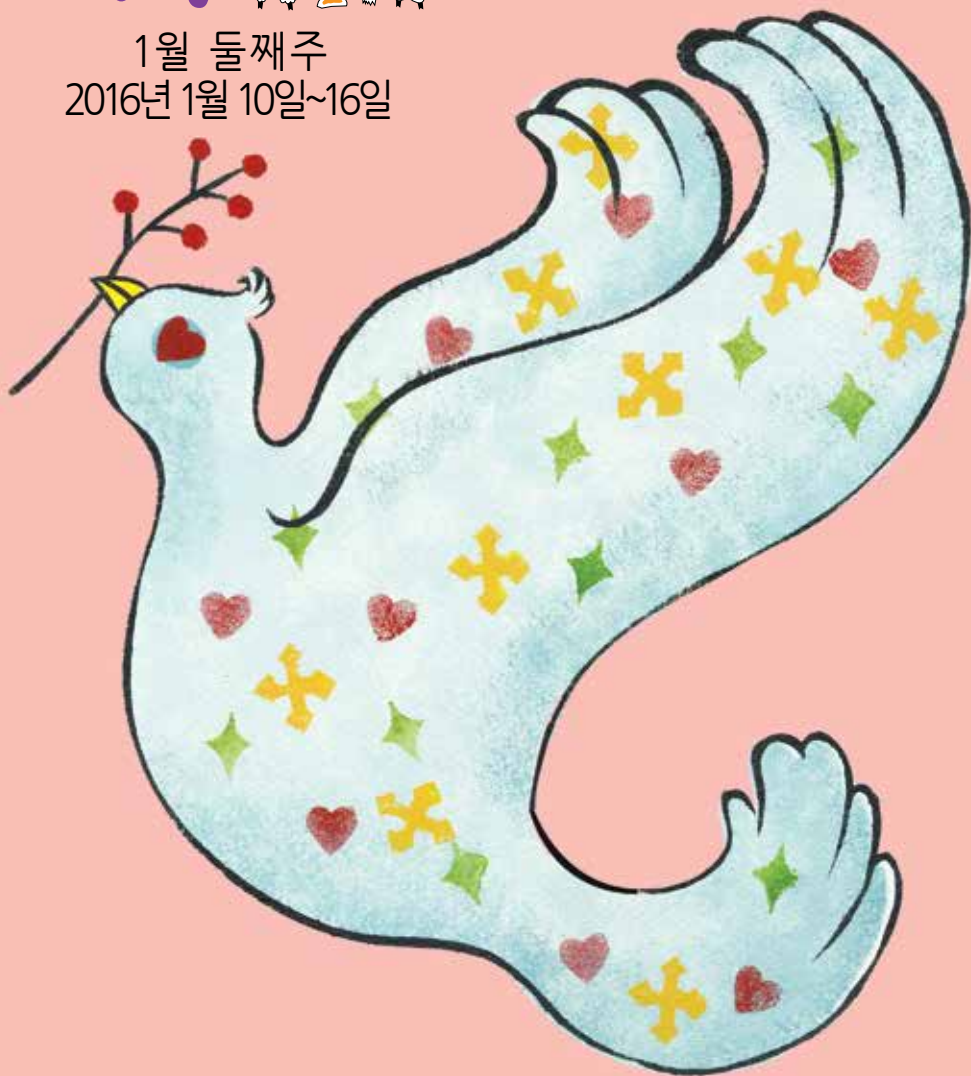
- 로마서 14:17



워드



1월 둘째 주
2016년 1월 10일~16일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 ♥ 성경 이야기 :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17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평화 가운데 사는 것,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천국)는 어떤지 이야기해보세요.
- ②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 교육활동 - “말씀 깃발 만들기”

- ▣ 위드 부록 활동지를 잘라서 말씀 깃발을 만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로마서 14:17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평화 가운데 사는 것,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히 있는 곳이지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기쁨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내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Pray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 므나: 화폐 기본 단위는 그리스는 드라크마, 로마는 데나리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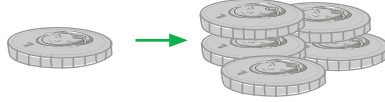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므나는 100드라크마였다(눅 19:13, 16, 18).

그러므로 1므나는 대략 노동자의 3개월 품삯에 해당한다.

★말씀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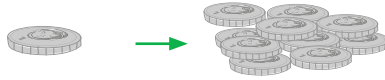
1. 종들은 한 므나로 얼마를 벌었나요?

첫째 종



_____ 므나

둘째 종



_____ 므나

2. 주인은 첫째 종에게 어떻게 칭찬해 주었나요? (17절)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삶 속으로★

주인은 종들을 불러 은화 한 므나씩 나눠주며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보았어요. 첫째 종은 열 므나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과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둘째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겨서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종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보아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5.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말씀 속으로★

1. 주인은 한 므나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던 종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22절)



★삶 속으로★

어떤 한 종은 주인을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은화 한 므나를 수건에 싸서 고스란히 보관해두었어요. 그 종에게는 오로지 은화 한 므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에게 혼나고 가진 것조차 빼앗기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었는지 보실 거예요. 그 때에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행동해보아요.

부모님과
함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길 원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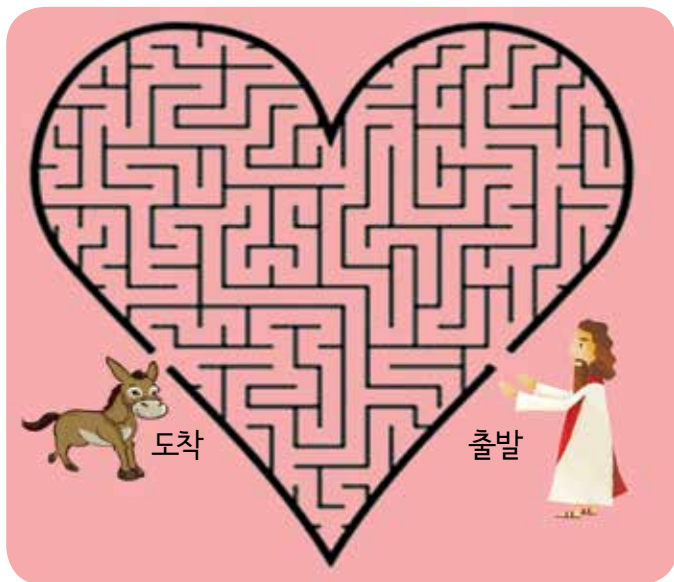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귀 찾아 떠나보세요.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직 아무도 타 본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찾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끼 나귀 한 마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인이 왜 푸느냐고 묻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귀 기울일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38.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39.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38절)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



★ 삶 속으로 ★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 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은 찬양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쁘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로마서 14:17



워드



12월 셋째주
2015년 12월 20일~26일



memory time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세상재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일 만큼 되느니라” ▷ 마가복음 4:31-32

♥ 성경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 마가복음 4:31-32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②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 교육활동 - “나의 다짐 적어보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아요.

가정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31-32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마가복음 4:26-32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지만, 땅에 심어져서 자라면 많은 새들이 쉬어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때로는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겨자씨처럼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거예요.



Q 1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누가복음 19:41-44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빈 칸을 채워 읽어보세요. (42절)

“오늘 너도

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려야 해요. 오늘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함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45-48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4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괴하고 있었으나,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나요? (46절)



ㄱ ㄴ 하는 집



ㄱ ㄴ 들의 소굴

★ 삶 속으로 ★

당시 성전에는 상인들이 제사에 드릴 동물을 팔고 있었어요. 동물이 제사 드리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갈수록 성전은 시장터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성전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고 거룩한 곳,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1-8 “예수님의 권한을 시기한 사람들”

1.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나요?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2점)

“당신은 무슨 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삶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시고, 제사장 혈통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활동하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9-12 “포도원 농부 비유”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10.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2.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서로 의미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포도원 주인 °

종들 °

농부들 °

° 대적하는 지도자들

° 하나님

° 선지자들



★ 삶 속으로 ★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농부들에게 폭행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지도자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며 계속적으로 종을 보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에 감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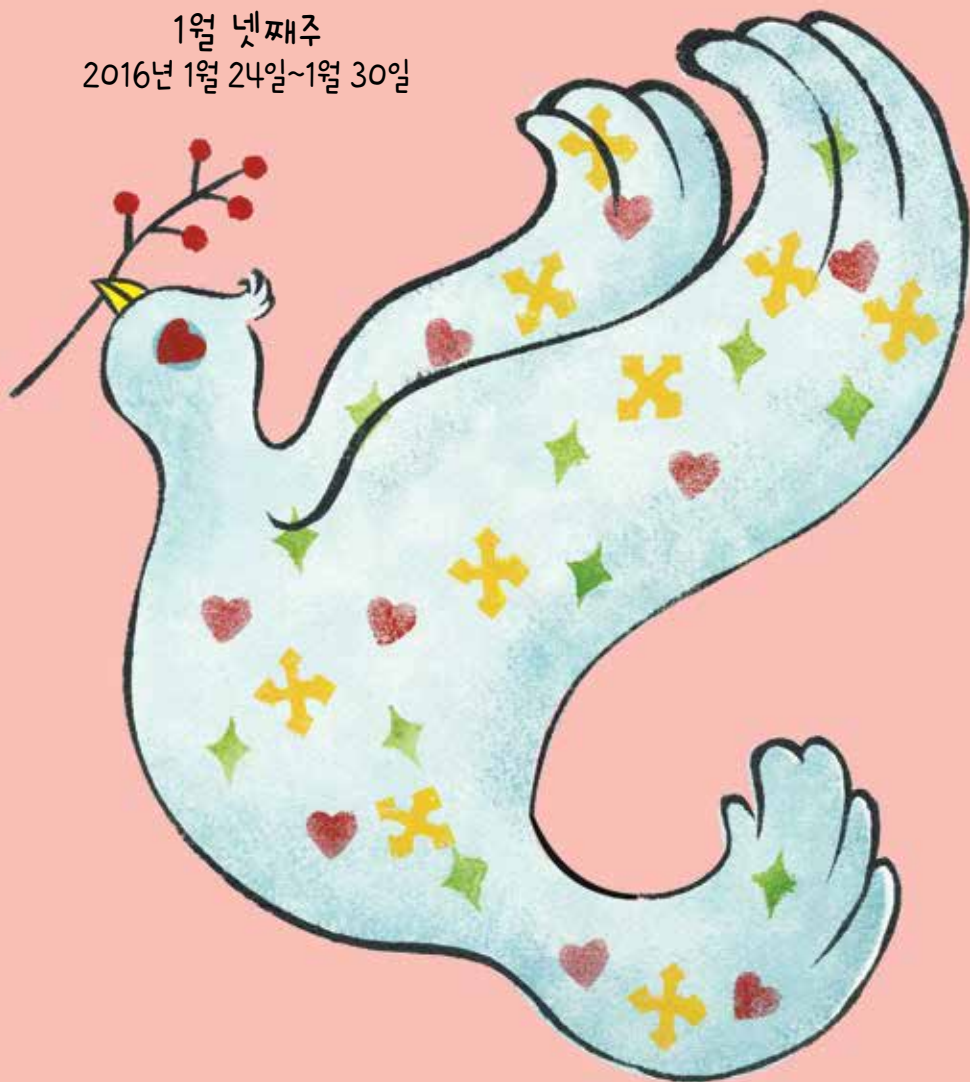
- 로마서 14:17



월드



1월 넷째주
2016년 1월 24일~1월 30일



memory time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네
사람재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 ▷마가복음 4:20

♥ 성경이야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1-9, 13-20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각각 어떤 밭으로 말씀해주셨나요?

② 다음 그림을 보고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1) 길 가

2) 돌밭

3) 가시떨기 밭

4) 좋은 땅

.

.

.

.

.

.

.

.



③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나요? (8절)

★ 교육활동 “나의 예배 약속”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 ▷마가복음 4:20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1-9, 13-20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요.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Q 1 우리 가족의 마음 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경험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이 되게 하자.'

15.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1. 포도원 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나요?(13절)

“”



★삶 속으로★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중해주리라 기대했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결국 주인은 농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해요.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이웃과 친구, 가족,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22.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 말씀 속으로 ★

1. 황제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5절)

“ 의 것은 에게 돌려주고,
 의 것은 께
 돌려드려라 ”



★ 삶 속으로 ★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어요.

가끔은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를 속이고 함정에 빠트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드큐티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예요.

부모님과
함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입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27-36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사두개파 : 유대 종교의 당파 중 하나.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부활과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참조. 막 12:18, 눅 20:27, 행 23:8)

* 28절 : 모세의 글은 신명기 25:5로 '형사취수법'을 가리킨다. 형제 중 형이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야 하는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옳은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세요.(34-36절)

- ①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
- ②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
- ③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천사와 같다. ()
- ④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 삶 속으로 ★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그 질문은 7형제가 형사취수법(28절)에 따라 한 여자와 연달아 결혼했는데 7형제 모두 자식 없이 죽었고, 여자도 죽었다면, 만일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40.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37절)

“ 의 하나님,
 의 하나님,
 의 하나님 ”

★ 삶 속으로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몇 백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사귀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부 모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먼 길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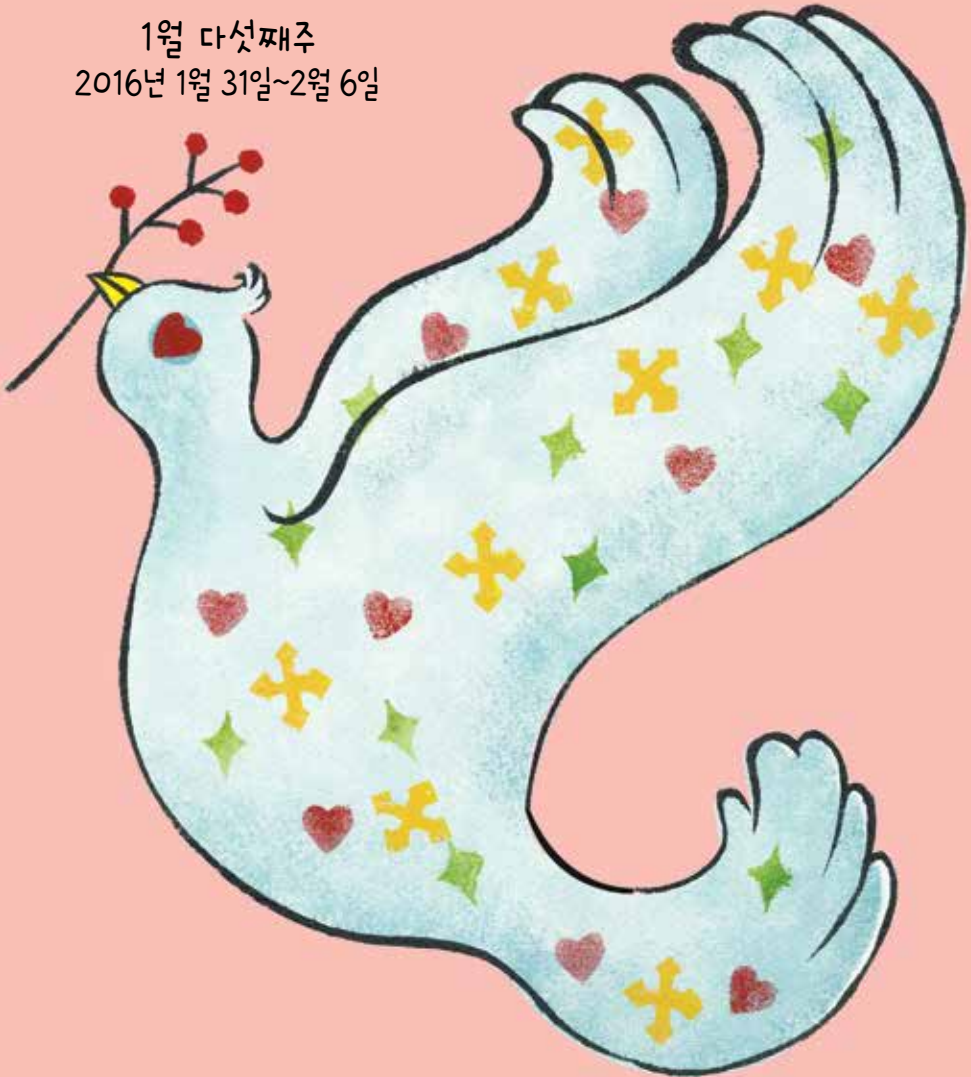
- 로마서 14:17



워드



1월 다섯째주
2016년 1월 31일~2월 6일



memory time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다섯째 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 성경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20:1-16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은 얼마였나요?(2절)

② 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와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한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을까요?

★ 교육활동 “하나님의 은혜예요!”

○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20:1-16

포도원 주인은 여러 명의 품꾼을 불러 일을 하게 하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어요. 하지만 일찍 와서 여러 시간을 일한 품꾼들과 늦게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받은 품삯은 똑같았어요. 이것을 알게 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와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아요.



Q 1 일찍 온 품꾼과 늦게 온 품꾼은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내가 일찍 온 품꾼이었다면 어땠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41-44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44.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 말씀 속으로 ★

1.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나요?(41절) 빈칸을 채워보세요.

“ 그리스도를

의

”

2. 다윗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44절)



★ 삶 속으로 ★

구약성경 곳곳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 존경을 받는 다윗 왕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주인)’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만주의 주!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 큰소리로 고백해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45-47 “**율법학자를 조심하라**”

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가산 : 한 집안의 재산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46절)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기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왕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부
모
님
과
함
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율법학자들처럼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1-4 “가난한 과부의 헌금”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 렘돈 두 *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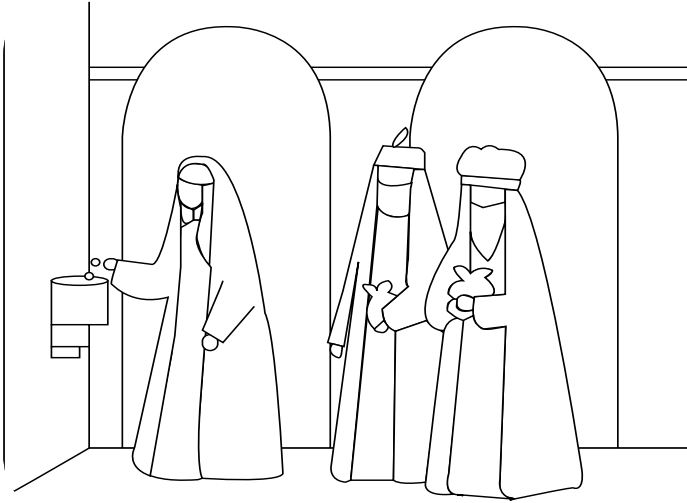
* 렘돈 : 당시에 사용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데나리온(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다.

* 닢 : 쇠붙이로 만든 돈이나 가마니같이 납작한 물건을 세는 말.

★ 말씀 속으로 ★

1. 가난한 과부는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생활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가 가진 돈은 얼마나 있었나요? 그 만큼 색칠 해 보세요. (2절)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과부의 렵돈 두 닢이 더 많다고 칭찬 하셨어요. 그 이유는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사람의 겉모습이나 헌금의 많고 적음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기도, 헌금 등을 드릴 때에, 무조건 많이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과부의 두 렵돈을 가장 많다고 칭찬하신 주님!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이 완전하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1:5-6 “성전이 무너질 날”

5.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말풍선 안에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보세요.



★ 삶 속으로 ★

당시 성전은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고린도전서 3:16).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겉모습만을 화려하게 가꾸기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꾸기보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오늘은 친구의 몸을 가볍게 주물러 주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친구가 눈을 떴을 때, 꼭 안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 기쁜 순간에 주님 함께 기뻐해주시고,

○○가 슬프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위로 해 주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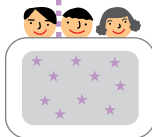
○○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친구를 다시 한 번 꼬옥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기뻐던 일,
혹시 힘들고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또 부모님의 하루 중에도 기억에 남는 일,
기쁘고 힘들었던 일을 친구에게 짧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친구가 부모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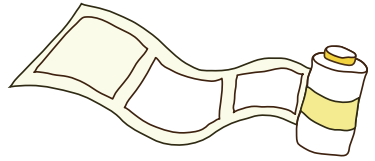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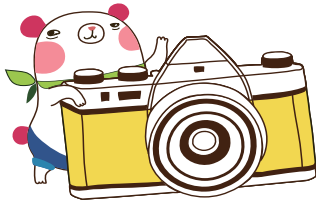
그리고 함께 두 손을 잡고 다음의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눈을 뜨고 소리 내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기쁜 일 가운데, 또 슬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잠자리에 들텐데 이 밤에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는 동안 잘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드 PHOTO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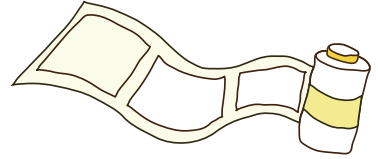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부 PHOTO



유년2부



2학년 김준수

유년2부



2학년 한예은

유년2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2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추천도서



1월

제목 : 화요일의 두꺼비

글: 러셀 에릭슨 / 그림: 김종도

옮긴이: 햇살과 나무꾼

출판: 사계절



잡고 잡아먹히는 천적관계인 올빼미와 두꺼비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그린 동물 판타지 동화. 무뚝뚝하며 친구 하나 없는 냉소적인 올빼미가 낙천적이며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두꺼비의 정성과 노력에 차츰 마음을 열어 가며, 마침내 깊은 우정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나를 소개해요

사는 곳: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육활동지

둘째주(1월10일)

말씀 깃발 만들기

풀칠하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교육활동지

셋째주(1월17일)

나의 다짐 적어보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위의 일들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름 : _____

나의 예비약속

